

걸핏하면 단속... 경계구역 주민들 “못살겠소”

광주 안보회관 인근 상인들 동-북구 경계 탓 수시 점검 CCTV 요구·고객 신분증 검사... 영업손실은 ‘나몰라라’

광주 안보회관 인근에서 1년째 PC방을 하는 김모(45)씨는 최근 가게 운영을 계속 이어갈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동구·북구와 동부경찰서·북부경찰서의 잦은 단속 탓인데, 찾아온 손님들이 이를 못마땅해 하면서 영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씨의 PC방 주소는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하지만, 동구 계림동과 직선거리로 10~20m에 불과해 양쪽 기관으로부터 흡연·수배자 점검·단속 등을 수시로 받고 있다.

특히 연말이 되면 구청·경찰서의 점검·단속만 한 달 평균 20회 이상 당하고 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관할 주소지가 북구인 만큼 동

구·동부경찰의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은 관할구역이 애매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전해들었다.

김씨는 “가게 앞 일방로 주변에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양 기관의 잦은 단속 때문에 손님은 떨어지는데, 혜택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 동구와 북구 접경지역인 광주 안보회관 인근 PC방·편의점 등 상인들이 도를 넘어선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당 상가가 동구와 북구 경계지점에 맞닿아 있으면서 양 지자체와 경찰서의 흡연·수배자 점검·단속 등은 관할을 가리

지 않고 당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혜택에 선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상가 주인 등에 따르면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일방로 주변엔 PC방·편의점·식당·모텔 등 30~40개의 상가가 밀집돼 있다.

동구와 북구 관할구역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이들 상가는 단속의 표적(?)이 된다.

이 지역은 동구와 북구의 구(區)간 접경 지역으로, 광주역과 직선거리로 400m에 불과해 뜨내기 손님들이 많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문제는 관할주소가 북구인데도, 동구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동구와 동부경찰서의 각종 점검이나 단속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이면 양쪽 경찰서 경찰관들이 가게 내에 자리를 잡은 뒤 행색이 조라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동구와 북구가 일주일에 한 번 콜로 돌아가면서 흡연단속에 나서면서 손님들이 줄어드는 영업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

일부 상인들은 손님의 불편을 덜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게 주변 도로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은 예산부족 및 관할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외면당했다.

해당 기관의 단속 실적을 위해서 관할을 따지지 않고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편의점 업주 최모(52)씨는 “단속·점검을 한 번만 당해도 손님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일상”이라며 “구간 경계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단속·점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분주해진 벌초 추석 명절을 한달여 앞둔 10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광주시립묘지에서 묘지 관리원들이 예초기를 이용해 벌초를 하는 등 묘역을 정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2018 수능 응시자 2만231명

2.5% ↓... 졸업생 응시는 증가

광주지역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만231명이 접수해 전년도 2만744명보다 2.5% (513)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광주 수능 응시자는 2016학년도부터 해마다 500명 이상 줄고 있다. 반면 졸업생 응시자 수는 2016년 3266명, 2017년 3280명, 2018학년도 3431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재학생은 1.32%(600명), 검정고시 출신자는 0.43%(64명) 감소했지만, 졸업생 지원자는 1.75%(151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1만207명(50.5%), 여자 1만24명(49.5%)이 지원했다.

탐구과목 선택은 사회탐구영역 939명(46.44%), 과학탐구영역 1만135명(50.10%), 직업탐구영역 257명(1.27%)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과학탐구 선택자가 사회탐구 선택자보다 739명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추석 앞 체불임금 살핀다

고용부 3주간 집중 점검... 체불근로자 생계비 이자율 한시 인하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광주 등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1000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밤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특히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지방 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다.

고용부는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분(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소액 채담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 융자도 제공한다. 5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율은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시 3.7%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1350),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2 해질 18:46
달출몰 22:10 달지름 11:02

오늘의 날씨: 흐리고 비가 오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17~20
서울	흐리고 비	15~18
대전	흐리고 비	16~19
대구	흐리고 비	17~20
부산	흐리고 비	18~21
제주	흐리고 비	19~22

항구	파고(m)	해상상태
서해 앞바다	중~남동 0.5~1.5	중~남동 0.5~2.0
남해 앞바다	남~남서 1.0~2.5	남~남서 1.5~2.5
남부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2.0
남부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1.5~3.0	남~남서 1.5~3.0
남부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5~2.5	남~남서 1.5~2.5

날짜	날씨	기온
12(화)	흐리고 비	20/29
13(수)	흐리고 비	17/27
14(목)	흐리고 비	16/27
15(금)	흐리고 비	17/27
16(토)	흐리고 비	17/27
17(일)	흐리고 비	18/27
18(월)	흐리고 비	18/28

가을 폭우... 오늘 최고 150mm 비

남해안 시간당 30mm... 여수·고흥 등 호우예비특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11일 최고 15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부 지방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1일 새벽부터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날(11일 새벽 기준) 여수, 고흥, 광양, 강진, 구례, 장흥, 완도, 해남, 거문도·초도 지역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효했다. 11일까지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50~100mm,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자전거 안전불감... 5년간 37명 사망

광주·전남 1500여건

최근 5년간(2012~2016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가 1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012년 130건, 2013년 129건, 2014년 182건, 2015년 146건, 2016년 128건 등 총 715건이다.

전남에서는 2012년 135건, 2013년 140건, 2014년 185건, 2015년 159건, 2016년 136건 등 총 755건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470건에 이른다. 이 기간 자전거 사고로 광주에서는 12명, 전남에서는 25명이 숨졌다.

사고 가해자는 20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층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농막형 1,350~2,350만원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옵션 선택가능

www.housecomma.com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목실, 철수 수도꼭지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H 010-9229-3530 062-5 3 1-3530